

(앞면)

부평아트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정기20일 / 수시5일
신청인	직업(단체명)	기호일보	사무실	032-761-0007
			휴대전화	010-9988-7832
	성명(대표자명)	서강훈	사업자등록번호	121-81-09419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2		
	이 메 일	kiho0001@hanmail.net		
시설사용신청내용	대 관 시 설	■ 소극장		
	공연명(전시명)	인문학 콘서트 : 깨지기 쉬운 인생을 사랑하는 법		
	장 르	인문학 콘서트 (강의+노래)		
	총사용기간(셋업/철수포함)	2023년 2월 24일 ~ 2월 25일 (총 2일)		
	공연일(전시일)	2023년 2월 24일(금요일) 19:30~21:30 2023년 2월 25일(토요일) 17:00분~19:00		
	무 대 준 비 기 간	2월 24일 9:00~19:30(총10.5시간)		
	첨 부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		
로비사용여부	없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기호일보 성명(대표자) : 서강훈 주 소 : 인천 남동구 미래로32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서 약 서

부평아트센터의 소극장(달누리)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떤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과 시설 사용허가를 준수한다.
-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 다. 사용기간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지기로 한다.
- 라.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위 되는 일 또는 타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권리 양도, 전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3일

서약자 : 기호일보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연(전시) 계획서

주 최	기호일보	주 관	기호일보	후원	
소요시간 (인터미션유무)	2시간	입장권 예상가격	2만 원	관람연령	대학생 이상
공연(전시) 취지		노래와 강의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 깨닫기			

공연(전시) 세부 내역

[시놉시스 및 프로그램]

-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내용의 강의 진행
-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사랑'에 있음을 찾는 내용의 강의 진행
- 삶과 사랑에 관한 가수들의 노래가 콘서트 초입, 중반, 끝 무렵에 진행됨

[가수 및 곡명]

- 뮤지컬 배우 2명 섭외 중
- '삶'과 '사랑', '죽음'의 의미에 대한 노래를 선곡할 것임

[무대]

- 무대 왼쪽에는 작은 나무 배치
- 무대 오른쪽에는 가로등과 벤치 배치
- 무대 중앙에는 빔 프로젝트용 배경(흰색 천) 위치

출연자(참여작가) 및 단체 소개

[출연진]

- 강사 : 최원영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겸임교수)
- 노래 : 그룹 여행스케치 임진웅 1명
뮤지컬 <영웅> 출연 여성 뮤지컬배우 1명
탤런트 윤승원 1명
- 무대감독(이재필), 음향감독(이경미), 조명감독(김기웅), 티켓관리(이애라)

[단체소개] : 별첨

주요 공연(전시) 경력

- * 2019년 11월 26일~27일. <애인 있으세요?>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
- * 2018년 3월 9일~10일. <사는 게 뭔지>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
- * 2016년 12월 13일~14일. <사랑하기,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
- * 2015년 12월 7일~8일. <발칙한 심리학, 사랑에 눈을 뜨다>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

- 첨부
1. 공연(전시)관련 자료(공연프로그램, 전시도록, 리플릿 등)
 2. 출연자, 단체 소개 및 공연(전시)경력 관련자료(자유서식, 포트폴리오 등)
 3. 출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공연의 경우)
 4. 기타 필요서류(대관신청자 선택)

티켓할인, 초대권 발행 계획서

- ☐ 단 체 명 : 기호일보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32
☐ 대 표 자 : 서강훈
☐ 공 연 명 : 깨지기 쉬운 인생을 사랑하는 법(인문학 콘서트)
☐ 사용시설 : 달누리 극장
☐ 판매기간 : 2023.2.1.~2023.2.25
☐ 티켓할인, 초대권 발행 내역 :

좌석 및 공연회차	할인계획	초대권 발행계획	비고
	티켓 2만 원 할인계획 없음	첫째 공연: 100명 둘째 공연: 100명	

* 기재하신 내용 외에 할인티켓 및 초대권 발행시 미리 부평아트센터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2022 년 11월 3일

신청인 성명 기호일보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아트센터 대관업무 진행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부평아트센터 기본시설(공연장/전시장) 대관심사 및 세금계산서 발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단체성격,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시·구·동), 연락처, 이메일주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개인으로 신청시)는 현장에서 구두접수 입력처리로 별도의 보관은 하지 않음
-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종료시
- 그 외 수집정보 : 부평구문화재단 문서보존기간에 준하여 처리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미승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관련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년 11 월 3일

성명 : 기호일보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인문학 콘서트 및 외부강연 관련 자료

1.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제1회, “나, 너, 그리고 그 사이“ (2014.9.16~17.)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제2회, “발칙한 심리학, 사랑에 눈을 뜨다” (2015.12.1.) 해누리극장

제3회, “사랑하기,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 (2016.12.13~14.) 달누리극장

제4회, “화작(化作)” (2017.7.4.)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제5회, “사는 게 뭔지” (2018.3.9~10.)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제6회, “애인 있으세요?” (2019.11.26~27.)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기호일보

HOME 본사행사

"물질 소유의 집착 버리고 진정한 나를 돌아봅시다"

✎ 김종국 기자 ㉠ 승인 2015.12.03 □ 3면

본보 창사 40주년 인문학 콘서트 최원영 교수 강연 성료



▲ 최원영 인하대학교 교수가 1일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본보 창사 40주년 기념 '행복전도사 최원영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에서 발칙한 심리학, 사랑愛(애) 눈을 뜨기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촉촉한 겨울비와 함께 '행복전도사' 최원영 교수(인하대)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본보 창사 40주년을 맞아 '발칙한 심리학, 사랑愛(애) 눈을 뜨다'란 주제로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1일과 2일 이틀간 열린 인문학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명강사로 소문난 최 교수의 '따뜻한' 강의를 듣기 위해 이날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길이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으로 이어졌다.

극단 '십년후'와 '다카스'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이날 콘서트에는 가수 서지윤의 노래와 최 교수의 강연이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깨달음의 축제가 됐다.

한창원 본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문학의 불모지, 인천에 인문학을 살어나게 한 최 교수를 모시게 돼 기쁘다"며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낮은 곳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 교수처럼 기호일보도 꾸준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100분 강연을 통해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찬 현대인의 심리적 프레임을 '인지부조화', '확증편향', '후광효과' 등의 심리학 용어로 쉽게 풀이해 관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있는 현대인의 심리적 편향과 경계의 틀을 일찌감치 허물어뜨린 서양 철학자 니체와 동양의 노자를 언급하며 자·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들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생존욕, 명예욕 등 온갖 욕구로 가득찬 우리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신이 주신 마음, 뿌리 깊숙이 있는 잠재돼 있는 무심하고 존귀한 마음이 있다"며 "이 마음을 사용하고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산책(명상과 반성)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인정과 성취 같은 '생존의 마음'이 너무 강하면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타적 마음,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음, 구별하고 경계로 나누지 않는 '존재의 마음'을 인식하기 힘들다"며 "존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사용해 스스로부터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을 자주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라는 교만의 틀에서 벗어나 '절대 겸손'을 통해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황폐해진 오늘날의 삶에도 희망은 여전히 있다"며 "짚신 장사와 우산장사 어머니의 일화처럼 생각의 틀을 전환하면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는 것처럼 너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언행을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 가자"고 말했다.

콘서트를 관람한 이순실(44·여·연수구) 씨는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의 삶의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결심이 서게 된다"며 "사랑에 눈 뜨게 해준 최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을 대표하는 극단 십년후의 창립자인 최 교수는 대구에서 출생해 3살 때 인천으로 상경, 동인천고등학교와 경인교육대학을 나와 잠시 교편을 잡았다. 이후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가 10년간 정치학을 공부하고 귀국해 지금껏 행복전도사로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1강 '감정 수업', 2강 '사랑하기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 3강 '우리 생애 최고의 해', 4강 '모범생 딜레마', 5강 '칸트의 조언' 등으로 구성된 특강 모두 관객과 호흡하는, 진솔한 이야기가 가득한 강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간 중간 음악회를 열어 지루함을 더는 콘서트 구성도 좋았다는 평이다.

싱어송라이터 서지윤과 테너 이현, 가수 박석용·최현 등이 무대에 올라 '변해가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서른 즈음에' 등 강연 내용과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 줬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원영 박사의 인문학 콘서트는 14일 오후 7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열린다.

한편, 행복전도사 최원영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는 인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본보가 개최하는 창사 41주년 기념행사이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호일보

HOME 사람과 사람 인천

언 땅 녹이는 햇살 같은 '사랑의 메시지'

✎ 김종국 기자 ㉠ 승인 2019.11.25 ㉡ 3면

행복전도사 최원영 교수 내일부터 인문학 콘서트



지난해 최원영 교수의 인문학 콘서트 장면. <기호일보 DB>

쉴쉴한 겨울의 길목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소박한 정(情)이 필요한 요즘, '행복전도사' 인하대학교 최원영 교수가 또 한 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다.

올해로 창간 31주년을 맞은 기호일보는 26일과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인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애인 있으세요?'라는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시와 연극, 노래와 강연이 어우러져 추위에 움츠린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녹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의 인사말과 시 낭송을 시작으로 다카스 합창단, 다카스 연극단의 명품 공연 등을 비롯해 최원영 교수의 강연, 가수 오승원·김지호·양섬윤 씨가 준비한 알찬 무대로 꾸며진다.

명강사로 소문난 최 교수는 항상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낮은 곳에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매년 열리는 인문학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극단 '십년후'의 창립자인 최 교수는 대구에서 출생해 3살 때 인천으로 상경, 동인천고등

기호일보

HOME 사회 인천

최원영 박사 인문학콘서트 인천 시민에 위로의 시간

✎ 김경일 기자 ㉠ 승인 2016.12.14 □ 2면

삶의 고통에서도 희망 반짝



▲ 최원영 인하대학교 교수가 13일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본사 창사 41주년 기념 '행복전도사 최원영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사랑하기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삶의 고통도 어쩌면 인생에 있어 도약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에 빠져 봅시다!"

행복전도사로 유명한 최원영 박사가 13일 오후 7~8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진행한 '인문학 콘서트'에서 전한 교훈이다.

자금심에 상처 받고 있거나 좌절감에 빠져 있어 인문학 콘서트를 찾아 온 이들에게 최 박사가 전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다.

이날 최원영 박사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지혜도 들려 줬다.

기호일보

HOME 사람과 사람 인천

관객 300여 명과 '삶의 의미' 돌아본 뜻깊은 시간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8.03.12 ㉡ 17면

본보 창간 30주년 '인문학 콘서트' 성황리 개최 행복전도사 최원영 박사 초청 3가지 주제로 강의

본보 창간 30주년 기념 '행복전도사' 최원영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사는 게 뭔지!'가 성황리에 열렸다.



본보가 주관하고 인천부평구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콘서트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열렸으며, 연일 3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했다.

콘서트는 본보 한창원 사장의 인사말과 자작시 낭독을 시작으로 박혜경무용단의 '삶과 죽음'을 표현한 무용, 최 교수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원영 인하대 프런티어학부 겸임교수가 진행한 강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3가지 주제로 이어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 중간중간 열린 '조효진 밴드'와 가수 '유나' 등의 공연도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한 주민은 "즐거운 노래와 공연 등 볼거리가 풍성한 강의였다"며 "누군가의 배경이 돼 줄 수 있는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이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호일보 창사 40주년 기념

행복전도사 최원영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발칙한 심리학, 사랑 愛 (애) 눈을 뜨다.

2015년 12월 1일(화), 2일(수)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주최 | 기호일보

주관 | 극단 십년후, 다카스

후원 | 부평구문화재단

문의 | 032-761-0001



기호일보 창사 41주년 기념
행복전도사 최원영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사랑하기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

2016년 12월 13일(화), 14일(수) 오후7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금 액 | 25,000원(당일 선착순 발권)
| 문 의 | 032-761-0001

출·연·진



이 현
(테너)



서 지 윤
(싱어송라이터, 가수)



박 석 용
(가수)



조 효 진
(트럼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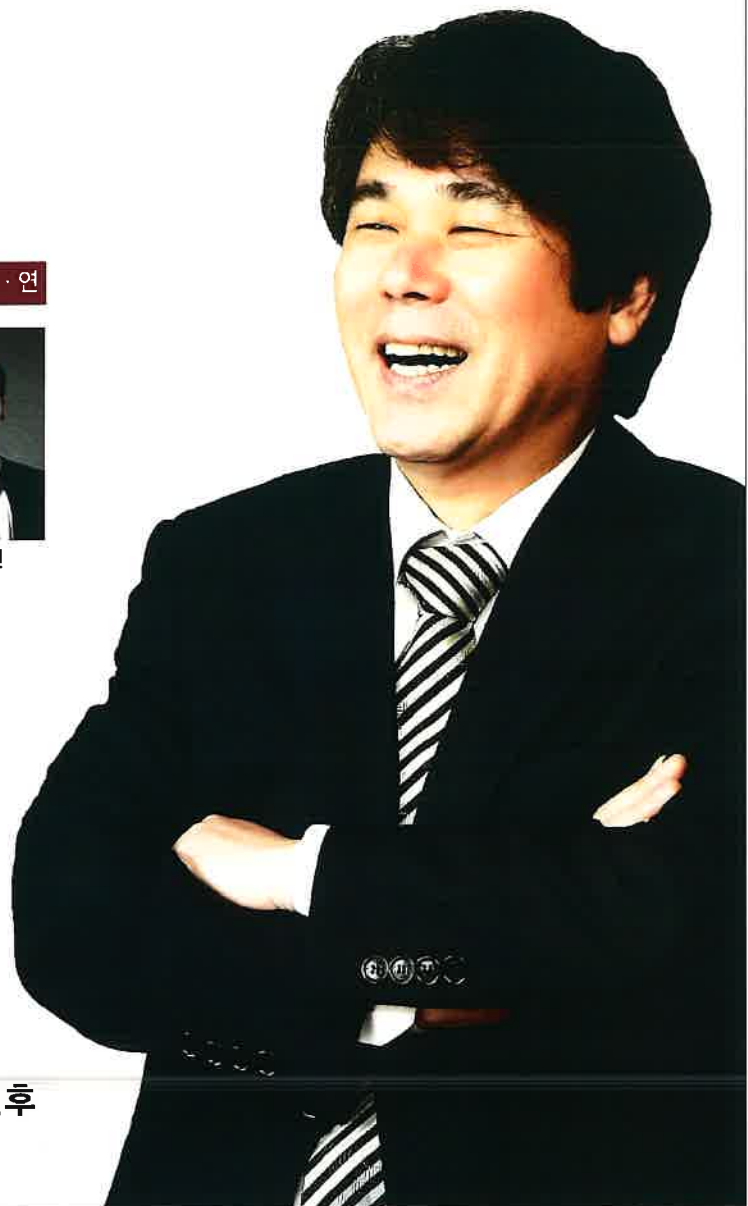


홍 유 정
(홍유정 아벨무용단)



최 현
(가수)

특·별·출·연



주최·주관 | 기호일보

후원 | 부평구문화재단 다카스 극단 십년후

기호일보 창간 30주년 기념

행복전도사 최원영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사는 게 뭔지!

2018년 3월 9일(금) 오후8시, 10일(토) 오후5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금액 | 20,000원(당일 선착순 발권)

| 문의 | 032-761-0007

출연진



조동일
(우유)



박혜경
(우유)



유나
(소울시티오케스트라 보컬)



조호진
(소울시티오케스트라 트럼펫)



이연재
(소울시티오케스트라 색소폰)



조성현
(소울시티오케스트라 건반)



정재훈
(소울시티오케스트라 베이스)



김학현
(소울시티오케스트라 드럼)



주최·주관 | 기호일보

후원 | 부평구문화재단

애인 있으세요?

기호일보 창간 31주년 기념
인문학콘서트

시와 연극 그리고 노래와 강연이
어우러져 올바른 사랑의
모습을 추적하다!

최원영 박사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11. 26(화)~27(수) 오후 7시 30분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금액 | 무료

| 문의 | 기호일보 사업국 032-761-0007

출 연 진

다카스 합창단
다카스 연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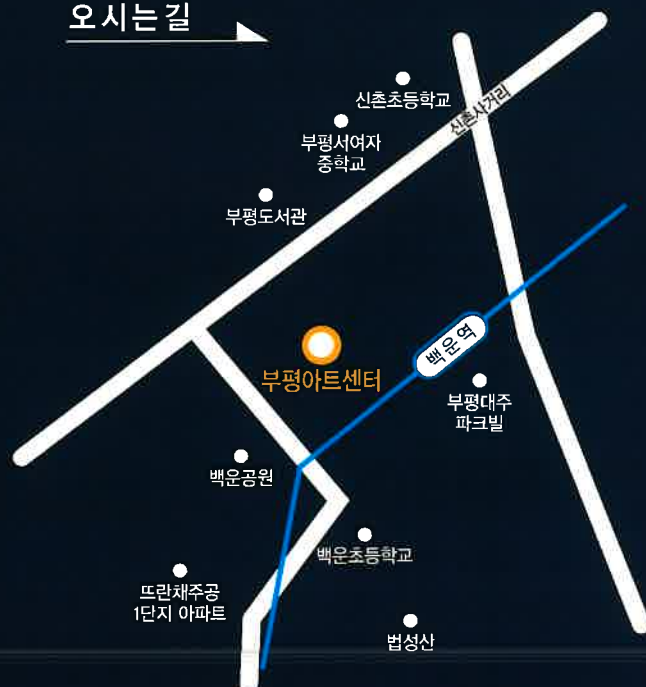
초 청 가 수

오승원, 김지호
양섬윤

주 최 | 기호일보

후 원 |

오시는길



기호일보 소개

기호일보는 언론의 암흑기인 1970년대 해직언론인들이 모여서 교육주간지인 경기교육신보를 창간함으로서 그 모태가 형성됐습니다.

그 후 경기교육신보를 법인으로 등록, 운영해 오던 중 언론자유와 함께 1988년 7월 20일 인천·경기지역의 애향정신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정·책임·정론·진실을 사시로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간 후 현재까지 기호일보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며 성장해 왔고 21세기 밝은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지역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일보의 공정한 보도와 신속한 정보제공에 끈질기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2011년을 시작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로 7회 선정됐습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언론사로서는 당사만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젊은 신문으로서의 창조적인 발전을 모토로 경인지역의 꼭 필요한 언론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 창간일 : 1988년 7월 20일
- ◎ 대표이사 회장·발행인 : 서 강 훈
- ◎ 대표이사 사장·편집인 : 한 창 원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2

□ 전자신문 소개

기호일보의 전자신문, 즉 인터넷 기호일보(www.kihoilbo.co.kr)를 운영하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첨단미디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호일보는 지면사정이나 제작사정으로 종이신문에 미처 게재되지 못한 기사도 모두 탑재해 종이신문보다 더욱 다양한 소식을 누리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게시판’ ‘독자투고’ ‘기사제보’ ‘기사쓰기’ 등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쌍방향의 신문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연재물과 기획기사, 그리고 다양한 기명칼럼을 한눈에 챙겨볼 수 있도록 배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 출판물 소개

기호일보는 1989년 7월부터 월간 ‘포토기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포토기호’는 인천·경기지역 각급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의 소식을 깨끗한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호일보는 또 1997년부터 ‘자치사진연감’을, 2006년부터 ‘교육연감’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자치사진연감’은 인천·경기지역 자치단체의 1년동안의 활동내용을 소상하게 수록하고 있으며, 기관이 전개한 활동을 생생하게 실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총선 중 최다투표율을 기록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공약과 미래비전을 총망라한 “제21대 국회의원 총람”을 발간하여 국회에 대한 관심을 실어 발간 했습니다.

□ 지역사회 공헌활동

기호일보는 경인 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실시해 온 3.1절 기념 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수원화성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와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 등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 유산과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미래도시 건설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기호일보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표 언론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 기호일보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기호일보	대 표 자	서 강 훈
사 업 자 번 호	121-81-09419	설 립 연 월 일	1988. 5. 25
업 종	제조업	업 태	신문, 인쇄, 출판, 광고대행, 이벤트업, 행사대행

년/ 월/ 일	내 용	비 고
1988.5.25	(주)기호신문사 설립등록	
1988.7.20	(주)기호신문사 창간	
1988.11.28	(주)기호일보사로 제호변경	
1989.3.8	월간 수도권 화보 발행 등록	
1995.6.5	한국ABC협회 가입	
1997.6.20	경인지방자치연감 최초발행	
2001.2.1	한국기자협회 가입	
2003.3.25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원사 가입(창립회원사)	
2003.12.23	수도권 화보 포토기호로 제호 변경	
2011~2018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2016.10.10	홈페이지 개편 및 기호TV 신설	
2018.3.1	3.1절 기념 제67회 단축마라톤대회 개최	최근 3년간 개최 행사
2018.3.9	2018 인문학콘서트 개최	
2018.4.21	제6회 수원화성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개최	
2018.6.16	제11회 화성시 봄사랑 가족축제 개최	
2018.7.20	제6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 개최	
2018.9.9	제4회 용인시장배·기호일보배 전국바둑대회 개최	
2018.10.20	제7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 개최	
2018.11.2	제3회 기호일보 자선골프대회 개최	
2019.3.1	3.1절 100주년 기념 제68회 단축마라톤대회 개최	
2019.5.11	제7회 수원화성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개최	
2019.5.18	제12회 화성시 봄사랑 가족축제 개최	
2019.6.6	제5회 용인시장배·기호일보배 전국바둑대회 개최	
2019.7.19	제7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 개최	
2019.10.12	제8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 개최	
2019.11.1	제4회 기호일보 자선골프대회 개최	
2019.11.26	2019 인문학콘서트 개최	
2019.12.2	제2회 경기도 자선골프대회 개최	
2020.4.27.~5.22	제8회 수원화성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전국공모전 개최(비대면)	
2020.7.20	제8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 개최(비대면)	
2020.9.21.~10.19	제8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 전국공모전 개최(비대면)	
2020.10.30.~11.16	3.1절 기념 제69회 단축마라톤대회 개최(비대면)	
2021.3.1.~3.31	3.1절 기념 제70회 단축마라톤대회 개최(비대면)	
2021.4.19.~5.21	제9회 수원화성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개최(비대면)	
2021.6.15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2021.7.20	제8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 개최(비대면)	
2021.9.13.~9.30	2021 생명사랑 밤길걷기 개최(비대면)	
2021.9.27.~10.22	제10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 개최(비대면)	
2022.2.10	제2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비대면)	
2022.3.1.~3.31	3.1절 기념 제71회 단축마라톤대회 개최(비대면)	
2022.4.25.~5.27	제10회 수원화성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개최(비대면)	
2022.9.1.~9.30	2022 생명사랑 밤길걷기 개최(비대면)	
2022.10.4.~10.21	제11회 미래도시그리기대회 개최(비대면)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21-81-09419

법인명(단체명) : (주)기호일보

대표자 : 서강훈

개업연월일 : 1982년 05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20111-0012328

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2(구월동, 비전타워)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2(구월동, 비전타워)

사업의종류 : **업태** 제조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종목 신문, 인쇄, 출판
광고대행
이벤트업
행사대행

발급사유 : 주소변경

TEL - 032-761-0007

FAX - 032-761-0015

E-mail - kiho0002@hanmail.net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전용전자우편주소 :

2019년 01월 16일

남인천세무서장

